

팍팍한 생활 속 지방공공요금 내리고 또 내렸다

익산시, 시민 가계부담 줄이기 총력... 큰 호응 얻어 하수도 요금 등에 이어 변호관 발급 수수료도 인하

생필품과 먹거리, 휘발유에 소주까지 오르지만 하는 생활물가에 시민 가계는 날로 팍팍해지고, '자식 성적과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웃픈 낱말까지 나오는 이때,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시민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물가안정 정책을 연이어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있다.

▲6월부터 자동차등록 변호관 발급수수료 대폭 인하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6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승용차 기준 2만 9천원에서 14% 인하한 2만 5천원으로 책정했다. 현재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격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 간 익산시는 인접

시군에 비해 변호관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민간업체들에게 판매단가를 낮추도록 강제할 수도 없고, 민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기존 변호관 제작소가 경영난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익산시는 자동차번호판 발급 대행업체 4개소와 단합회를 통해 인하율 14%로 최종협의를 마쳤으며, 이로써 익산시의 변호관 발급 수수료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를 제외한 전북도내 시군중에서 제일 저렴해졌으며, 수도권의 수원시설관리공단이나 안산시공사, 의정부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에 속하게 됐다.

한편 2018년 기준 익산시의 변호관 발급 수수료는 9,252건이 부과되

▲1월부터 쓰레기 봉투값 인하 실시

익산시(시장 정현율)의 서민 경제 부담 줄이기는 2019년 1월부터 시행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인하 정책으로 시작했다. 인근 시군에 비해 익산시 쓰레기 봉투가격이 비싸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더해 쓰레기 봉투가격이 불법투기 현상을 부추긴다고 판단되자 익산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쓰레기봉투 가격인하를 결정했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시의회와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심의 절차는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현재 쓰레기 봉투가격은 기존가격의 67.5% 수준으로 조정되어 20L기준 800원에서 540원으로 인하됐다. 이는 2016년도 쓰레기봉

투 판매가격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 기존 3L가 최소용량이었지만 혼족, 딩크족, 1인가구 등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1L와 2L를 추가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만 2세이하의 영아보육 가구에 매일 60L씩 쓰레기봉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4월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하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앞서 추진한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를 선례 삼아 하수도 사용료 인상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그 간 익산시는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 계획'(2014년 6월 행정자치부)에 따라 2016년 2월 익산시 하수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하수도사용료는 4차례에 걸쳐 전년 대비 25%씩 인상되었으며, 이로 인한 가계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되었다.

익산시는 사용료 인상계획 종료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수도 사용료 단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4월 고지분(3월 사용분)부터 인하된 단가를 적용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익산시의 하수도 사용료 인하 정책으로 가정용 10톤 사용기준 월 1,400원의 절감효과를 내며 시민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업종과 물 사용량에 따른 단계구분을 고려하면 더욱 큰 폭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변호관 발급 수수료, 쓰레기봉투, 하수도요금 등 실생활에 밀접한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을 세심하게 살피며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항 개항 120주년 활기찬 미래 기원

군산시, 바다축제 행사 개최

군산항 개항 120주년을 기념해 군산시와 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들이 비전 선포식 및 바다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1일 진포해양테마공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공동 개최했으며 도내 항만, 해양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부대행사로 해양안전 VR(가상현실) 체험, 선박모형조립 등 23개의 홍보·체험부스 운영, 바다사생대회 개최 등 개항의 의미를 살리고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군산항을 글로벌 해양·물류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의지를 다지는 '군산항 개항 120주년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그 동안 군산항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온 9명에게 공로패를 수여 하는 등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한 항만 관계자를 격려하였으며 수상자들은 한목소리로 "개항 120주년을 맞은 군산항의 재도약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군산항 개항 120주년 행사 관계자는 "해운항만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어느 때 보다 군산항의 새로운 동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어려운 여건일수록 지자체와 국가기관, 항만관계자 등이 군산항 현안사업과 활성화에 서로 협력하는 등 유대관계를 더



지난 11일 진포해양테마공원에서 군산항 개항 120주년을 기념해 군산시와 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들이 비전 선포식 및 바다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욱 공고히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항 개항120주년을 맞아 지난 3일 '기념포럼'을 시작으로 7일부터 17일까지 시청 로비에서 '군산항 120년 역사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개항 120주년 군산항 소식지'를 60,000부 발간해 5월중 시정소식지와 함께 관내 각 세대에 배부를 준비하는 등 역사 알리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 1899년 5월 1일 개항한 군산항은 수탈의 이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으로 1900년대부터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군장선항만 개발을 적극 추진해 현재는 서해중부권 관문항구로서 성장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신임경비교육생 15일까지 모집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경비업 취업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신임경비교육' 교육생 30명을 15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신임경비교육은 14년부터 경비원 채용 시 법정교육 이수과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재취업을 돕고자 마련했으며 전주대학교 민간경비센터와 연계하여 운영된다.

교육과목은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및 정비사용법 등 10개 과목으로 24시간에 걸친 모든 과정을 이수하면 이수증도 수여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민간단체,孝 문화도시 조성 협약 체결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지난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등 8개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孝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단체는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여성단체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장학회, 이·통장협의회, 새마을지회,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법인 신광복지재단, 원광효도마을 등 8곳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단체는 어르신 이 공경 받고 시민이 행복한 '효 문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해 '효 문화 실천운동'에 참여함으로써 '효 문화'가 시민들 속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단체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기관 단체 등과 함께 시민 운동으로 '함께해孝, 사랑해孝, 행복해孝', '부모님께 관심 갖기' 등 5월 실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세부 실천내용은 ▲1주에 한 번 부모께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건 어떨까요? ▲달에 한 번 부모님과 식사 시간을 갖는다면 좋아하시겠죠. ▲1년에 한 번 부모님과 나들이 시간을 갖는다면 자녀들도 배우겠죠! 등이다.

협약에 참석한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신혜경 회장은 "효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정신으로 효 실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효 실천 운동이 지속적인 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해 효 실천이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대돼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효 문화도시가 조성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시는 지난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8개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孝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단체는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여성단체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새마을지회,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법인인 신광복지재단, 원광효도마을 등 8곳이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다문화이주민+센터 본격 운영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익산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지난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익산시다문화이주민+센터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건물 한 곳에 관련 기관(법무부, 고용노동부, 익산노동자지회,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익산시)이 모두 입주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 지리나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다문화센터가 아닌 익산역 4층에 설치해 외국인 주민에게 다양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를 이용한 한국인 사업주 김모(36, 여)씨는 "전에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전주에 있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와 익산고용센터 두 곳을 각각 방문했었는데 이제는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안내자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업무개시 후 2주간 총 239명이 센터를 이용했으며 이용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익산시다문화이주민+센터는 센터 내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을 설치해 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일반 주민과의 소통과 교류의 장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 청년물 활성화 '활기'

군산공설시장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청년물 활성화사업으로 인해 활기를 띠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청년물 서포터즈, 아이장터 활동으로 청년물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청년물 서포터즈단'은 문화기획 및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및 대학생·일반인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군산공설시장 청년물은 지난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상인 육성 및 특성화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돼 청년물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물 대학협력사업'이 선정돼 국비 1억원의 사업비지원으로 올해 12월까지 대학이 보유한 전문인력, 연구장비, 지식기술 재산을 활용한 청년물 활성화가 본격 추진된다.

이날 발대한 서포터즈단은 청소년·일일 사회적경제장터인 'OFF-LINE' 아이장터와 영상을 통해 청년물을 소개하는 'ON-LINE' 장터로 나눠 활동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도시재생 플리마켓 장터 호응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구시청광장에 도시재생 플리마켓 장터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3월과 4월에 걸쳐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들과 관광객들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5월부터는 매월 3째주 토요일에 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플리마켓 장터에는 아트마켓(핸드메이드/공방/제철 마켓)과 중고부품 마켓(중고물품, 도서)에서 엔틱한 분위기의 중고물품과 세상하나라 밖에 없는 수제품도 살 수 있고 직접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또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인 문화기획 경비재와 군산공예협동조합의 재능기부로 통기타 발라드 음악과 색소폰 악기연주 등 버스킹 공연과 체험공예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별도 시의 예산지원 없이 주민주도로 매월 장터가 운영될 예정이며, 시는 구시청광장이 전국적인 플리마켓, 버스킹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